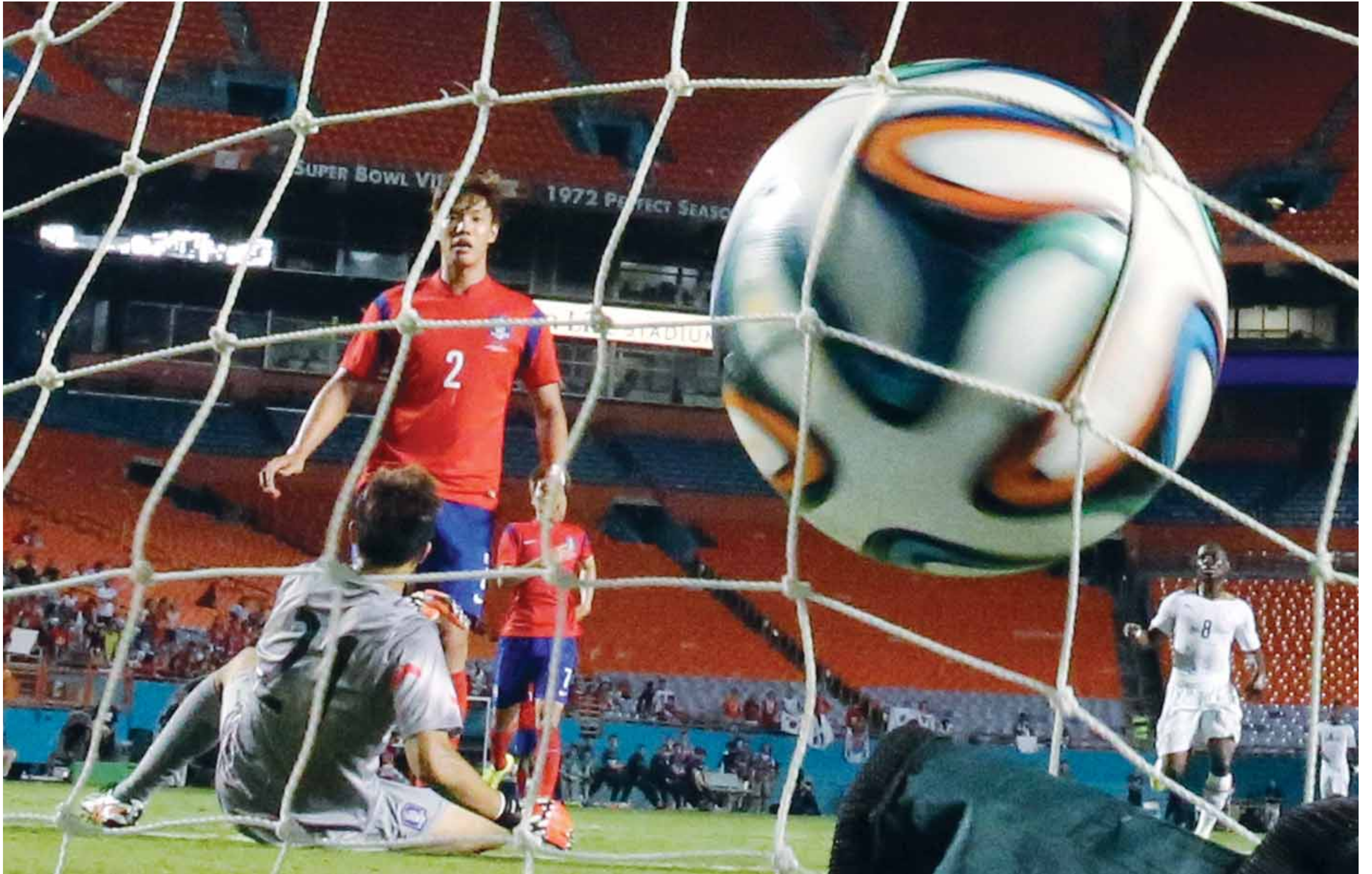


0-4 ... 아직, 시간은 있다



그물이 출렁 ~ 가슴은 철렁 ~ 10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 가나의 평가전. 한국이 가나의 조던 아예우에게 네번째 골을 내주고 있다. /연합뉴스

가나와 평가전 수비불안·조직력 무너져 대패

대표팀 오늘 브라질 입성... "남은 5일 기적 일궈라"

'닷컴의 기적을 일궈라.' 대한민국 국민이 흥명보호에 내린 특명이다. 월드컵 본선 무대를 앞두고 치른 마지막 평가전에서 가나에 완패를 당한 흥명보호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결전의 땅' 브라질로 향했다. 축구 대표팀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치른 가나와의 마지막 평가전에서 0-4로 완패했다. 전술은 없고 투지로만 싸운 출전이었다. 사령탑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연습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흥명보호는 가

나의 역습에 번번이 허를 찔리며 실점했다. 거기에 마지막 실점은 '압박 실종'이었다. 흥 감독이 역점을 뒀던 역습과 압박에 모두 실패한 것이다. 지난달 8일 일찌감치 월드컵 본선에 나선 23명의 최종 명단을 확정할 흥명보호는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 소집 초반부터 여러 가지 약점이 겹치며 훈련의 효율성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왼쪽 풀백 김진수(니가타)는 부상이 낫지 않아 박주호(마인츠)로 급하게 교체됐고, 홍정호(아우구스부르크)는 튀니지 평가전 때 발등을 다쳤다.

선수들이 합류하는 시기도 제각각이어서 사실상 지난달 28일 튀니지와의 평가전을 이를 앞두고 윤석영(윈스파크 레인저스)이 늦깎이 합류하면서 23명이 모두 모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흥명보호는 튀니지와 치른 국내 마지막 평가전에서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0-1로 패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마이애미 전지훈련에 나서야 했다. 마이애미 전지훈련 초반에는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이범영(부산) 등 일부 선수들이 감기 증세로 훈련을 쉬는 등 선수단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다. 흥 감독은 이 때문에 선수들 집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를 동안 비공개 훈련을 하며 러시아와 조별리그 1차전에 가동할 전술 완성에 애를 썼다. 그리고 그 시험 무대는 가나였다. 하지만 기대는 가나의

뛰어난 경기력에 하염없이 무너졌다. 조별리그 첫 경기를 여드레 앞둔 상황에서 치른 마지막 평가전에서 완패하면서 흥명보호의 분위기 역시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흥명보호는 11일 브라질로 떠나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포스 두 이구아수에 입성한다. 이 곳에서 조별리그 1차전 상대인 러시아에 대비한 막판 훈련을 치른 뒤 18일 오전 7시 쿠아바의 판타우 경기장에서 조별리그 통과와 시급석이 될 러시아전을 치른다. 이후 알제리와 23일 오전 4시 포르투갈 레그리에서 2차전을, 벨기에와는 27일 오전 5시 상파울루에서 최종전을 치른다. 흥명보호에 사실상 남은 훈련 시간은 12~16일까지 닷새밖에 없다. '닷컴의 기적'이 절실하다. /박정욱기자 jwpark@

"중요한 건 본선...한국, 힘내라"

명장 밀루티노비치 "본선에선 다른 모습 보일 것"

"중요한 것은 월드컵 본선입니다." 세계적인 축구명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혔던 보라 밀루티노비치(70·세르비아) 감독이 흥명보호에 대해 "자신감을 잃지 마라"는 조언했다. 밀루티노비치 감독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한국과 가나와의 평가전을 지켜본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경기는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월드컵 본선이 시작되고 나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규율이 잘 잡힌 팀"이라며 "브라질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한국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세르비아 출신의 밀루티노비치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을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켰고, 코스타리카(1990년)·미국(1994년)·나이지리아(1998년) 대표팀을 맡아 잇따라 '16강 돌풍'을 일으키면서 명장 반열에 올랐다.

'16강 청부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밀루티노비치 감독은 또 멕시코(1986년)·코스타리카(1990년)·미국(1994년)·중국(2002년) 등 5개 팀의 사령탑을 맡아 월드컵 무대를 밟았다.

2009년 이라크 감독에서 물러나 쉬고 있는 밀루티노비치 감독은 "오늘 패배가 한국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경기의 결과로 자신감을 잃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경기는 한국이 치른 수많은 경기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며 "한국은 오늘 나온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한국에는 좋은 선수들과 좋은 감독이 있다. 조별리그 통과라는 꿈만 꾸면 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CJ 슈퍼레이스 '포디엄' 싹쓸이

금호타이어 장착 레이싱팀 1·2·3위

금호타이어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상하이 티엔마 서킷에서 열린 '2014 CJ헬로 모바일 슈퍼레이스' 3라운드 결승에서 포디엄을 석권했다. 특히 금호타이어 소속 '엑스타(ECS-TA) 레이싱팀'의 간판선수이자 전 F1출신 선수인 이태유지가 폴투피니쉬(예선, 결선 1위)를 차지해 우승을 거머쥐었다. 2위(CJ레이싱 황진우), 3위(CJ레이싱, 김의수) 역시 금호타이어를 장착하고 포디엄에 올랐다. 엑스타 레이싱팀의 김진표는 5위를 차지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이로써 엑스타 레이싱팀과 CJ레이싱팀이 상위권을 독차지해 완승을 거뒀다. 금호타이어를 장착하고 2위를 차지한 전년도 챔피언 CJ레이싱팀 황진우 선수의 꾸준한 활약도 기대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경기에서 올해 출범한 엑스타 레이싱팀이 우승과 함께 포디엄을 석권하며 기술 우위를 입증했다"며 "지속적으로 기록 경신을 위한 최적의 타이어를 선보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4 CJ슈퍼레이스 3전'에서 출전한 스톡카들이 금호타이어를 장착한 채 상하이 티엔마 서킷을 달리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